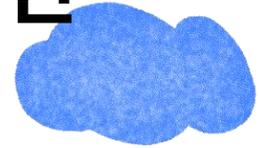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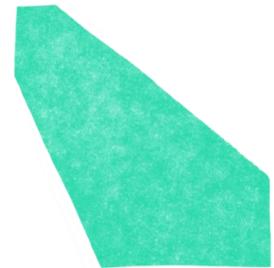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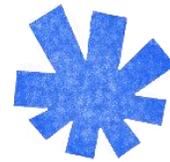


해외건설 수주 2조달러 조기달성을 위한 기업의 미래 전략



1. 글로벌 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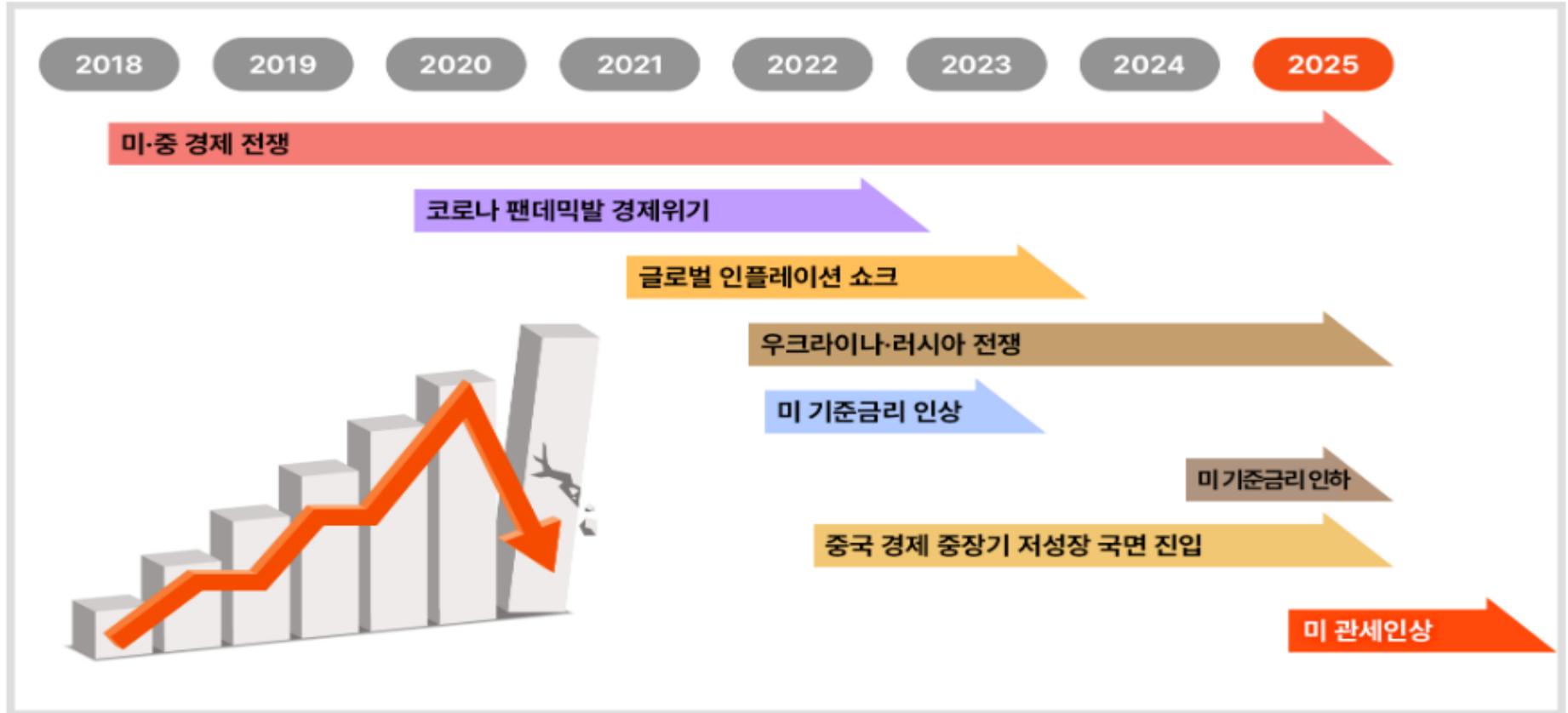
글로벌 트렌드의 변화

	팬데믹 이전	팬데믹 이후
미국의 역할	세계의 대통령 - 세계 안보, 자유무역	America First & America Only - 보호무역주의, 지정학적 갈등 격화
미.중 관계	차이메리카(China + America) - 상호협력 관계 통해 세계 경제성장 주도	미중 패권 전쟁 -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철저히 분리
글로벌 공급망	수요 기반 경제: 저물가 - 적극적 이민정책으로 저가 노동력 공급 - 중국, 세계의 공장: 저가 상품 - 러시아, 세계의 원자재 공급처	공급 제약 경제: 인플레이션 민감 - 반이민정책으로 노동력 공급 차질 - 중국 중심 GVC 붕괴 - 핵심부품&원자재 무기화
기술 안보	기술 공유의 시대 - 선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기술 이전	기술 안보의 시대 - 기술 독점, AI발 기술 전쟁
	⚠ 저물가, 저금리, 약달러의 시대	⚠ 증물가, 증금리, 강달러의 시대

- 팬데믹 이전에는 저금리, 무역확대에 초점을 둔 성장중심의 고도 **Globalization(세계화)**이 진행됨.
- 팬데믹 이후로는 지정학 갈등(ex. 미-중 디커플링, 전쟁), 공급망 재편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 **“Fragmentation(분절) 화”**

1. 글로벌 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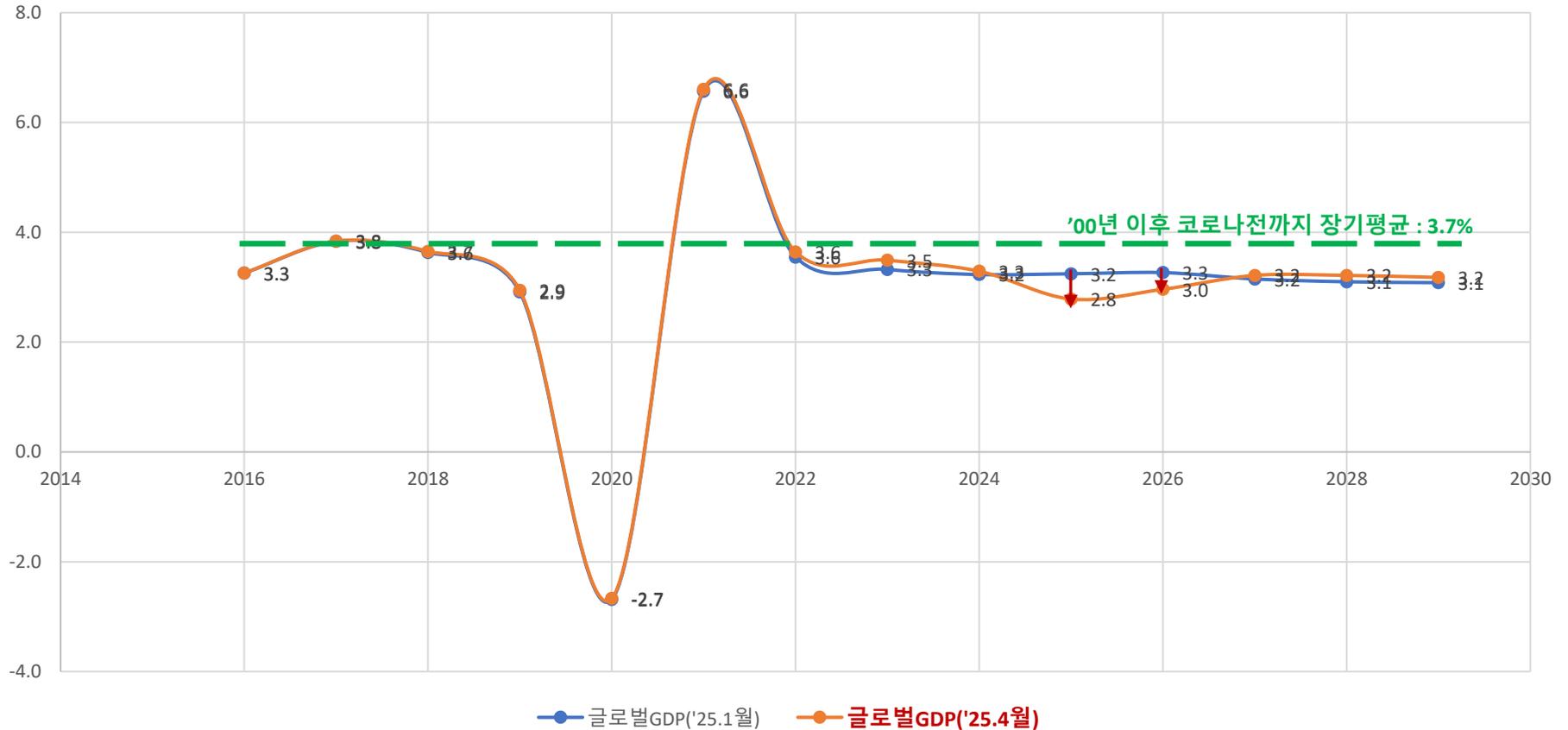
세계경제의 리스크요인 흐름



- 미-중 경제전쟁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공급망 취약, 지정학 갈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기술안보↑ → 글로벌 분절화 시작.
- 세계 경제는 양대 경제 축인 중국의 경제부진 및 트럼프2.0 미국 관세부과로 글로벌 경기침체 및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중.

1. 글로벌 경제 전망

IMF 글로벌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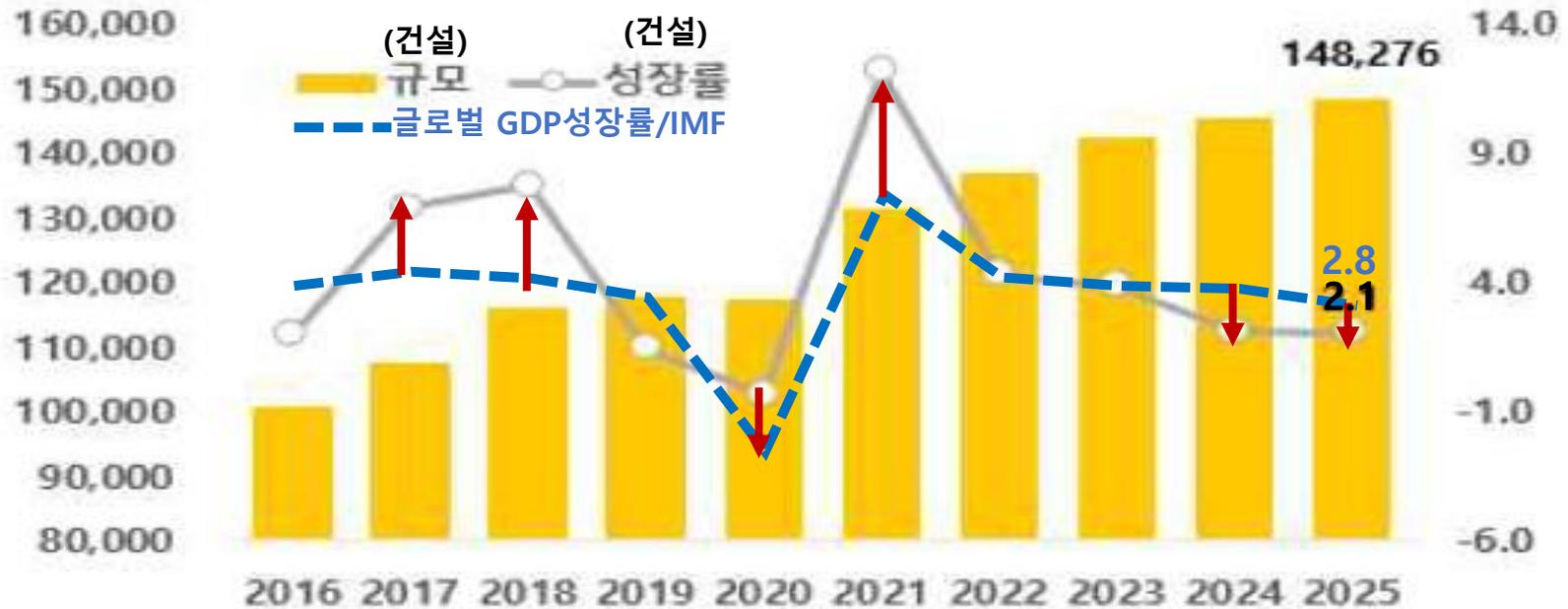


- 코로나 이후 대외 환경변화와 불확실성 증가로 경기침체가 경기순환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 “장기 저성장 전망”
- 글로벌 경기침체와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중국의 기술추격 등으로 국내 주요산업들의 수익성 하락.

2. '25년 세계건설시장 규모 전망

세계건설시장 규모·성장률 추이 및 전망(단위: 억불, %)

'25년 세계 건설시장은 '24년 대비 2.1% 성장한 14조 8,276억불로 전망



[출처: IHS Markit]

- 글로벌 건설 성장률은 글로벌 GDP 성장률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으며, GDP 성장률보다 진폭이 큰 경향을 보임.
- 따라서, '30년까지 GDP 저성장기간 중 글로벌 건설성장률은 GDP 성장률 이하로 글로벌 건설 성장률 축소가 예상됨.

2. '25년 세계건설시장 규모 전망

지역별 건설시장 규모 전망(단위: 억불, %)

구분	2024	2025	성장률	'25년 규모	글로벌 GDP
중동	6,815	7,583	11.3	5%	4%
아시아	64,872	65,931	1.6	44%	35%
북미·태평양	29,367	29,824	1.6	20%	31%
아프리카	1,040	1,154	11.0	1%	2%
유럽	35,713	36,140	1.2	24%	24%
중남미	7,472	7,644	2.3	5%	4%
합계	145,279	148,276	2.1	100%	100%

[출처: IHS Markit]

- 글로벌 건설시장 규모는 글로벌 GDP의 약 12 ~ 14% 수준으로 아시아, 북미, 유럽이 글로벌 건설시장 규모의 약 90%를 차지함.
- '25년부터 중장기 건설성장률은 미국의 관세영향이 적은 중동, 아프리카 위주로 글로벌 GDP성장률 이상의 성장세가 예상됨.

3. 발주처 - 권역별 건설시장 현황

북미
 트럼프 2.0, 인프라 노후화 고려 규제완화를 통한 인프라 시장 확대 기대
 캐나다 수상 교체, 관세타격으로 성장전망 악화로 인프라 우선순위 재조정
 정책방향 변화 모니터링 필요
 영연방국가 위주 계약 시스템 우호적 변화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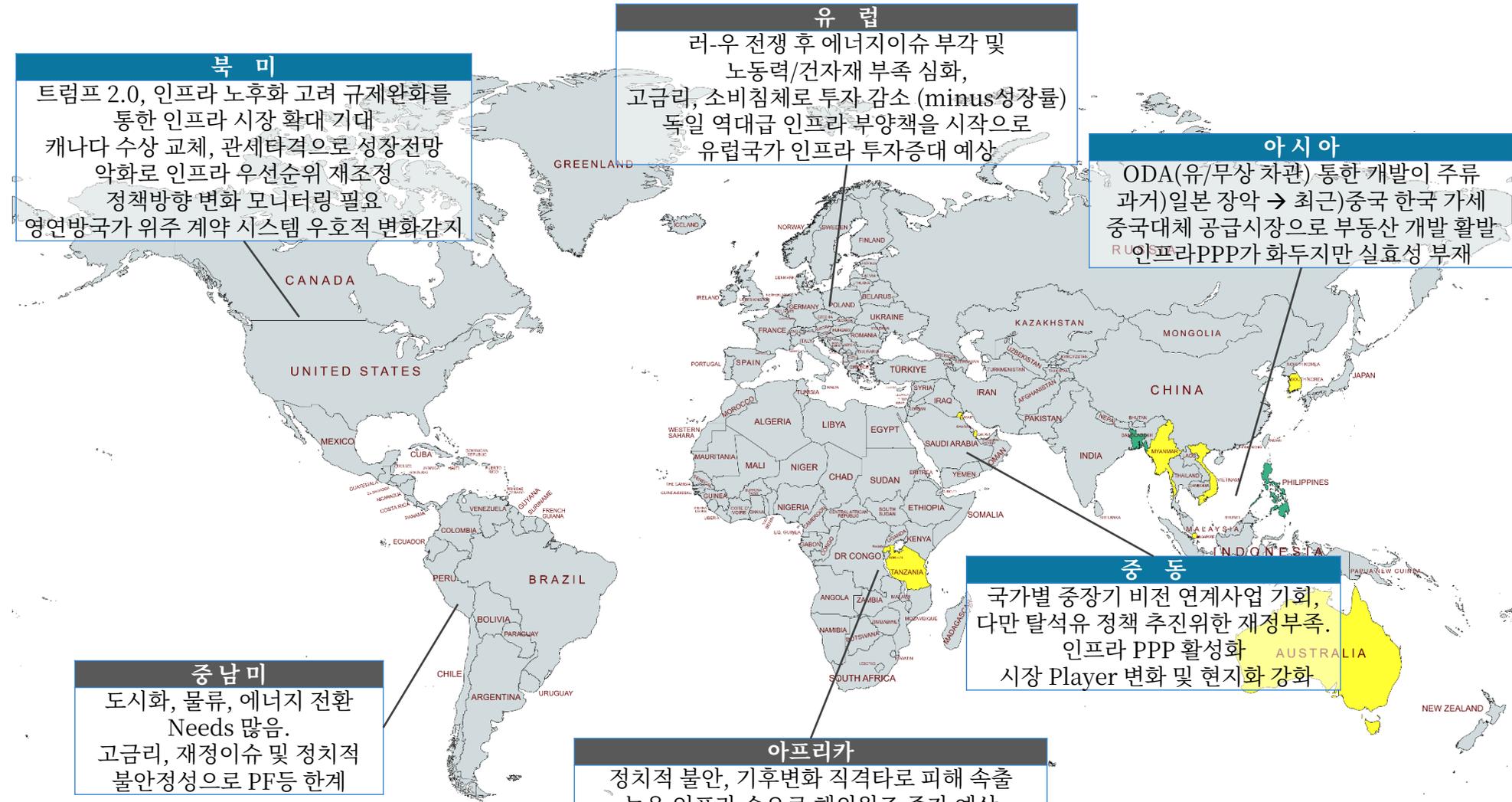
유럽
 러-우 전쟁 후 에너지이슈 부각 및 노동력/건자재 부족 심화,
 고금리, 소비침체로 투자 감소 (minus성장률)
 독일 역대급 인프라 부양책을 시작으로 유럽국가 인프라 투자증대 예상

아시아
 ODA(유/무상 차관) 통한 개발이 주류
 과거)일본 장악 → 최근)중국 한국 가세
 중국대체 공급시장으로 부동산 개발 활발
 인프라 PPP가 화두지만 실효성 부재

중동
 국가별 중장기 비전 연계사업 기회,
 다만 탈석유 정책 추진위한 재정부족.
 인프라 PPP 활성화
 시장 Player 변화 및 현지화 강화

중남미
 도시화, 물류, 에너지 전환 Needs 많음.
 고금리, 재정이슈 및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PF등 한계

아프리카
 정치적 불안, 기후변화 직격타로 피해 속출
 높은 인프라 수요로 해외원조 증가 예상
 다만, 규모 있는 기술지향공종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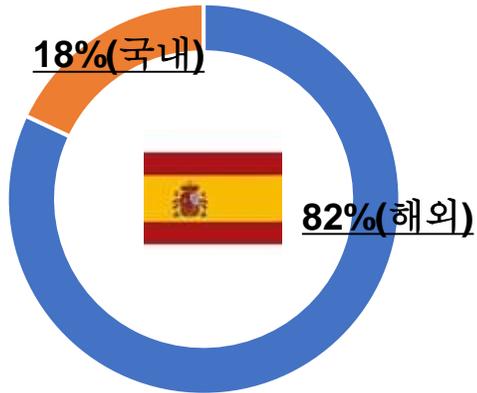


4. 경쟁사 - 선진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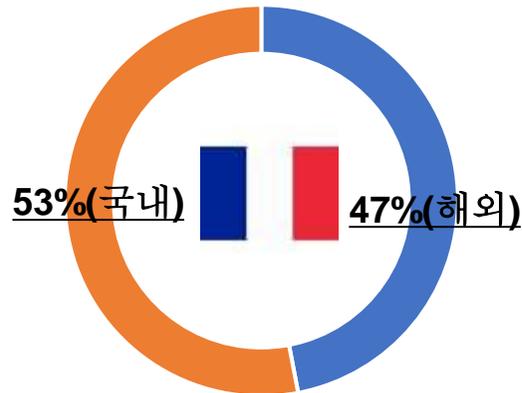
자료 출처 : ChatGPT

국내 vs 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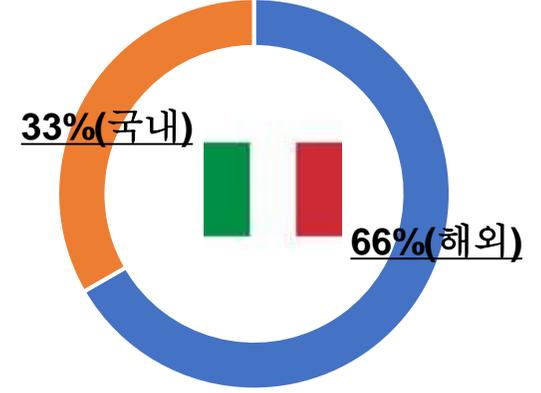
스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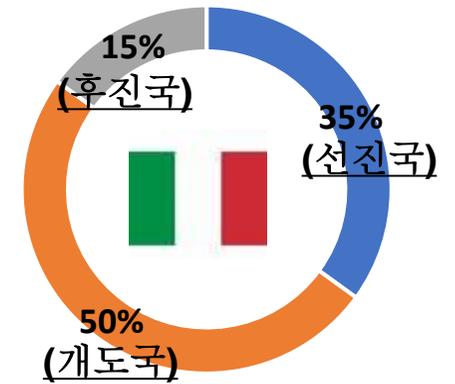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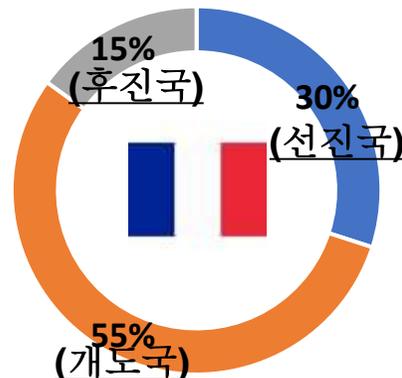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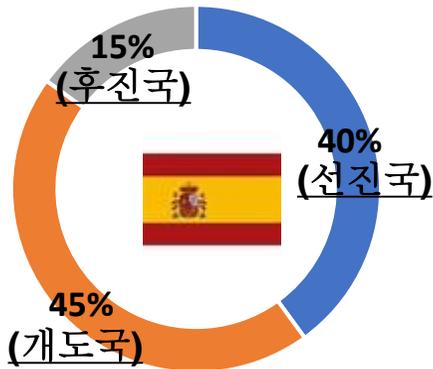
프랑스



이태리



해외 매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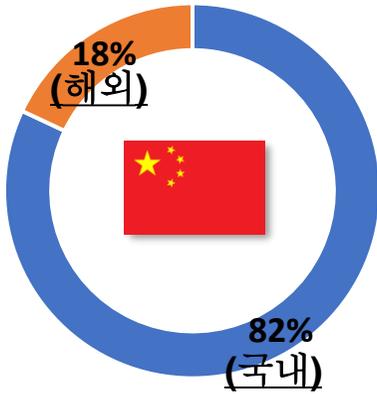
- 사업규모 대규모화에 따른 Risk-Taking 을 위해 국가별 정부 or 민간주도로 소수의 건설사가 주도하게 됨.
- 매출측면 해외사업을 위주로 특히 선진국을 대상으로 매출규모를 유지하고, 인프라 투자사업을 통한 영업이익 개선을 추구.

4. 경쟁사 – Fast Follower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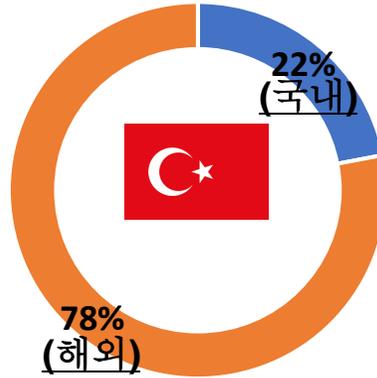
자료 출처 : ChatGPT

국내 vs 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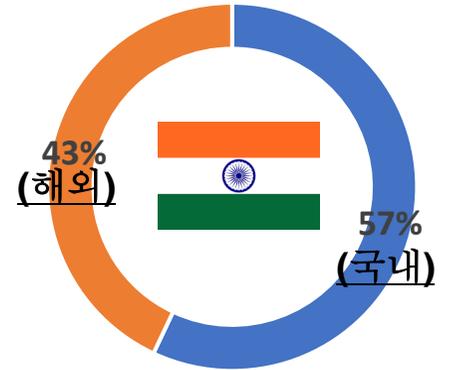
중국



터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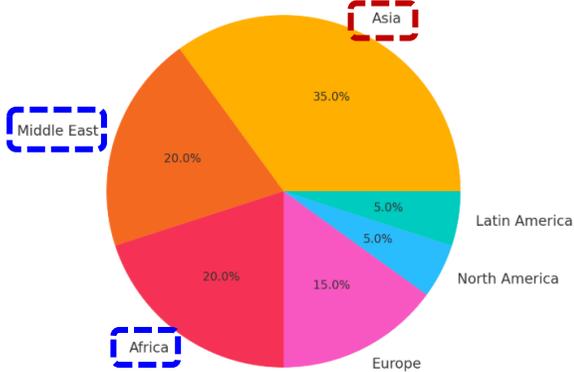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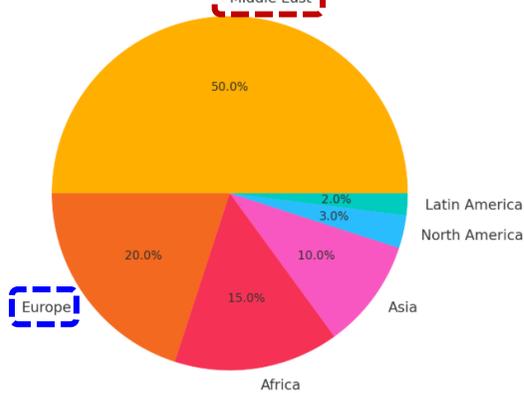


해외 매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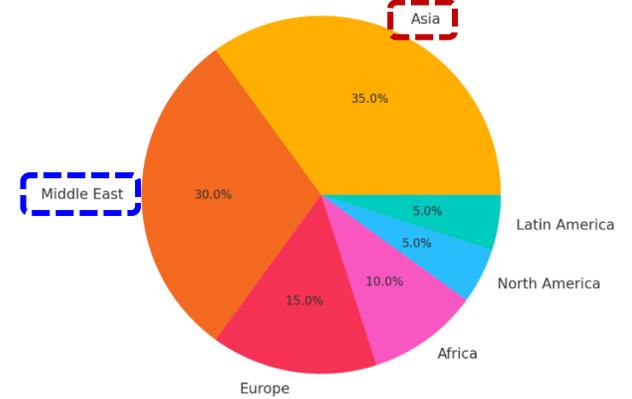
China (CCCC): Overseas Revenue by Region (Estimated)



Turkey (Rönesans): Overseas Revenue by Region (Estimated)



India (L&T): Overseas Revenue by Region (Estim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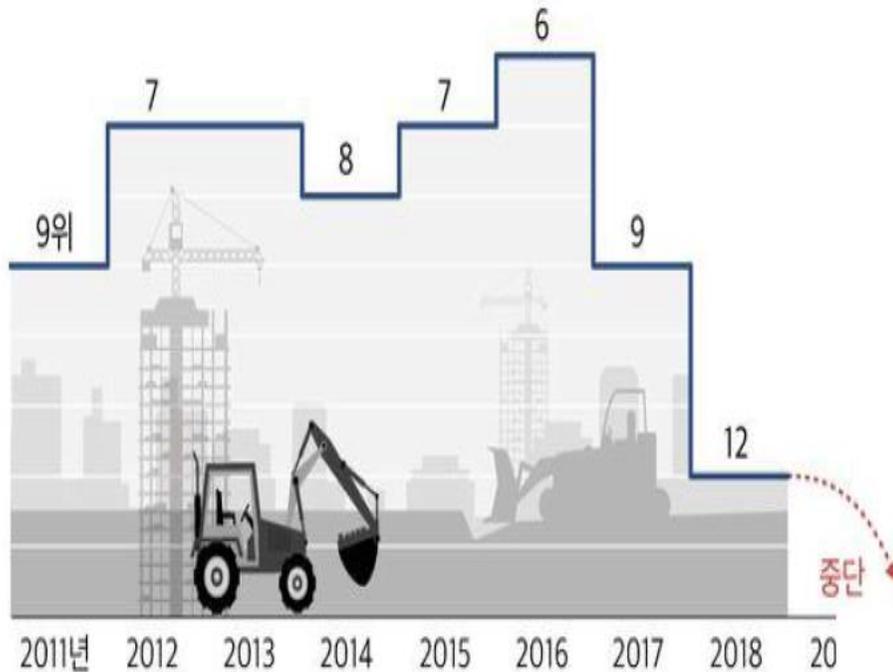
- 중국, 인도 건설사는 자국내 사업을 위주로 매출을 유지하며, 터키업체는 해외 매출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됨.
- 해외매출 측면, 중국, 인도 건설사는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위주이며, 터키업체는 중동과 유럽 위주로 해외사업을 수행중임.

5. 한국 건설사 - 글로벌 건설분야에서 한국건설사의 위상

한국 건설사는 "Nutcracker"로 선진사와 Fast Follower사이 경쟁력 약화의 압박 받는 구조

자료 출처 : 건기연

한국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순위



자료 출처 : 건기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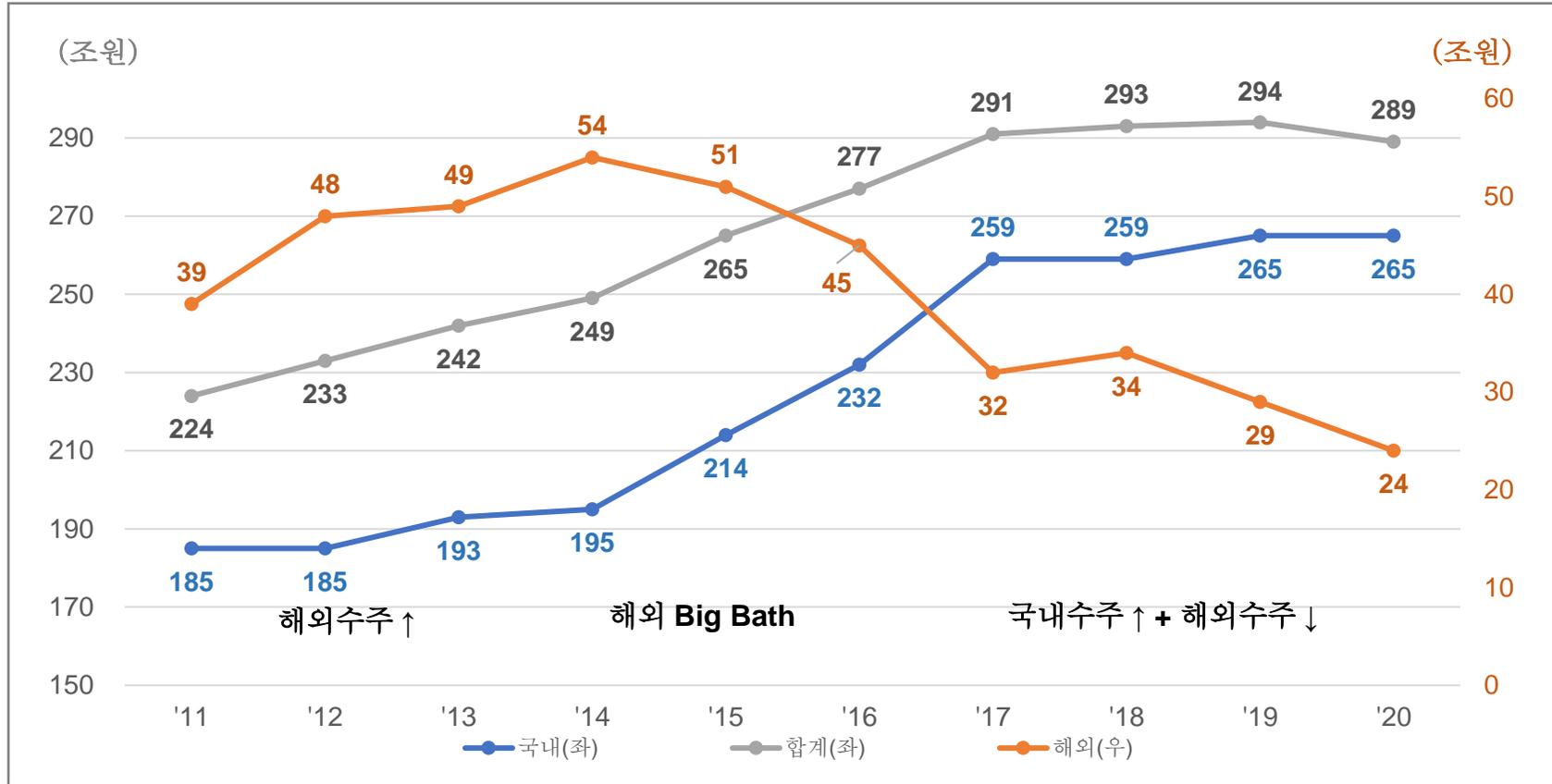
구분	4. 시공경쟁력				5. 설계경쟁력				6. 가격경쟁력			
	2018년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2017년	
순위	국가명	점수										
1	China	10	China	10	U.S.A.	10	U.S.A.	10	India	10	India	10
2	Spain	8.1	Spain	8.1	Canada	6.0	Canada	5.0	Egypt	9.8	Egypt	9.8
3	U.S.A.	6.6	U.S.A.	8.1	The Netherlands	4.2	The Netherlands	4.9	China	9.1	China	9.1
4	Germany	6.6	Italy	7.0	Australia	4.0	Spain	4.7	Turkey	8.4	Turkey	8.4
5	U.K.	6.5	Turkey	6.6	Spain	3.8	U.K.	4.5	Greece	8.4	Greece	8.3
6	France	6.0	France	6.5	China	3.8	China	4.4	Portugal	7.9	Portugal	7.9
7	Austria	5.7	S. Korea	6.3	Germany	3.1	Australia	4.3	S. Korea	7.3	S. Korea	7.3
8	Italy	5.6	Germany	6.1	Portugal	3.0	France	4.1	Spain	7.1	Spain	7.1
9	Turkey	5.6	Austria	5.7	U.K.	2.9	Italy	4.0	Italy	5.8	Italy	6.2
10	S. Korea	5.3	Japan	5.5	Denmark	2.9	Denmark	3.4	Austria	5.6	The Netherlands	5.6
11	Japan	5.1	U.K.	5.4	Italy	2.7	India	3.3	The Netherlands	5.5	Austria	5.5
12	Sweden	4.6	Sweden	5.4	India	2.7	Greece	3.3	Australia	4.7	Australia	4.7
13	Greece	4.5	Canada	5.1	S. Korea	2.7	S. Korea	3.2	Japan	4.6	Japan	4.4
14	Canada	4.4	The Netherlands	5.0	Turkey	2.4	Sweden	3.1	U.S.A.	3.5	Canada	3.8
15	Australia	4.3	Australia	4.8	Japan	2.3	Turkey	3.1	U.K.	3.1	Germany	3.3
16	Portugal	4.1	Greece	4.8	Sweden	2.1	Portugal	3.1	Canada	2.9	France	3.2
17	The Netherlands	4.0	Portugal	4.4	Austria	2.0	Japan	2.8	Germany	2.9	U.K.	3.1
18	Denmark	3.3	Denmark	4.0	Greece	2.0	Austria	2.8	France	2.6	U.S.A.	2.7
19	India	3.1	India	3.4	France	2.0	Germany	2.7	Sweden	2.5	Sweden	2.5
20	Egypt	1.0	Egypt	1.0	Egypt	1.0	Egypt	1.0	Denmark	1.0	Denmark	1.0

- '18년 건기연 평가결과 한국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은 12위(20개국 대상)로 확인 후, 평가 중단됨.
- 한국 건설사는 수주에서 후발주자들의 저가 공세에 따른 가격 경쟁과 선진국들의 기술경쟁사이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임.

5. 한국 건설사 - 글로벌 건설분야에서 한국건설사의 위상

국내/해외 매출규모 변화

자료 출처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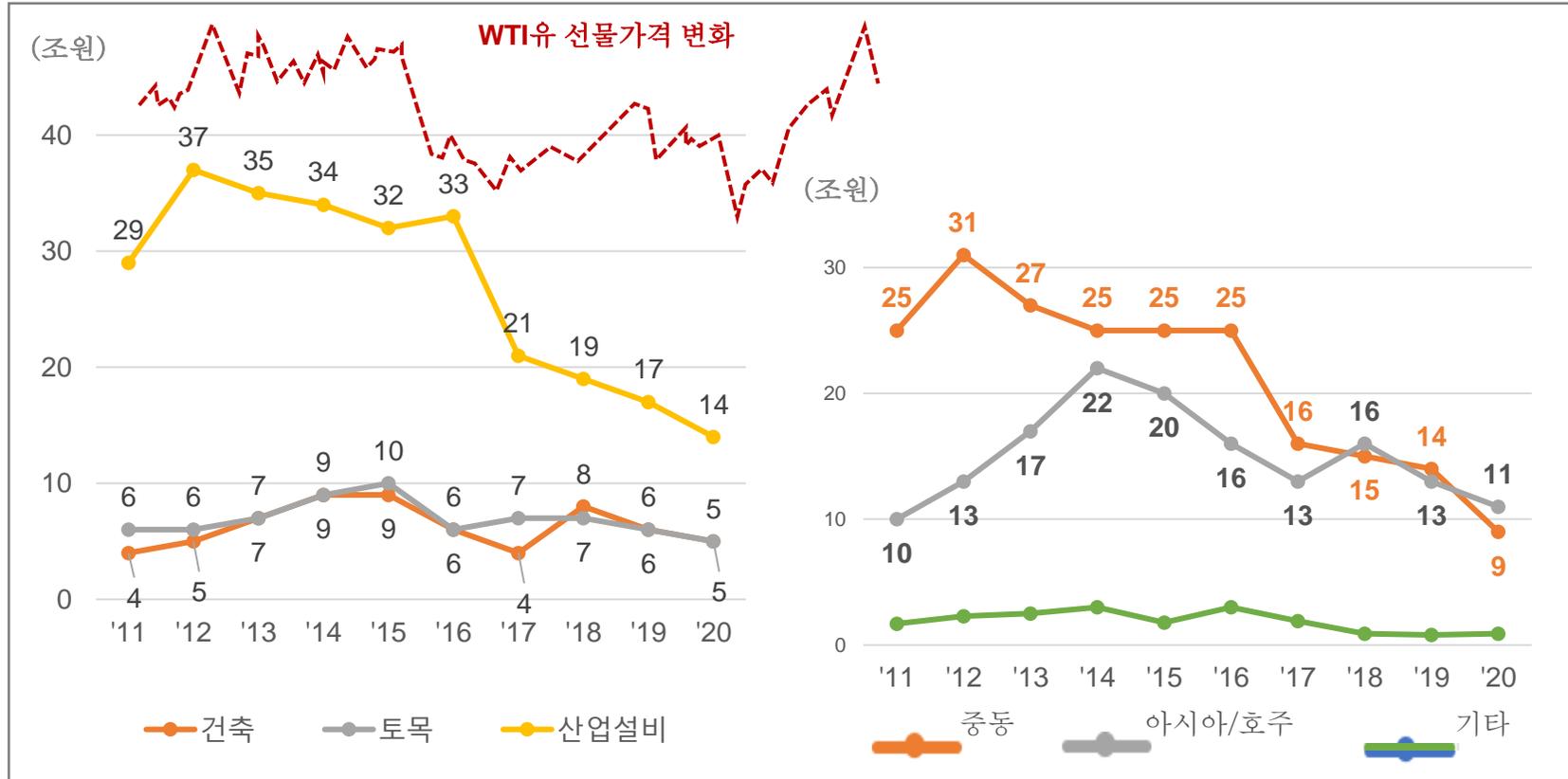


- '15년 ~ '20년 2차 주택건설 붐을 겪으며 건설사들의 국내 주택 매출비중이 70%에 달하며 해외경쟁력 급속하게 약화
- 현재 국내 건설산업은 미분양 증가, 건설업 수주액 감소로 영업환경이 악화된 상태이며, 부동산 PF 연체율 증가로 부실위험에 직면

5. 한국 건설사 - 글로벌 건설분야에서 한국건설사의 위상

해외 공종별 / 지역별 매출규모 변화

자료 출처 : 통계청



- 한국 건설사의 해외 매출은 '14년 Oil 가격 Peak-out까지 산업설비 위주로 중동 지역에서 실현되었으며, 이후 급격한 감소를 보임.
- 다만, 건축, 토목은 주로 아시아/기타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부분 해외매출규모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최근 3년 동안 해외수주 부재

6. 장기 저성장 시대, 해외건설 주요 이슈 및 한국 건설사 대안

" 해외시장개척 + 기존시장사수 + 영업력/민첩성 강화 + 생산성 향상" 을 통한 장기 생존 전략을 구사필요

주요 이슈

한국 건설사 대안

발주처

- 지정학적 불확실성 / 공급망 붕괴
- 물가상승(인건비, 자재비)
- 시장 변동성 大 ← 글로벌 경제 영향
- 발주 Trend 변화 (Risk Sharing Sys.)

선진사

- Risk 높은 개도국 지양
- 선진국 비중 높음 → 안정적 매출규모 확보
- M&A/투자사업 확대 → 영업이익 개선

경쟁사

Fast Follower

- 생산성 향상 → 해외 market 확대 중(중국사)
- 해외비중 확대 중 → 단, 선진국 제한

한국사

- 국내 주택 내수 편중구조로 중장기 성장난망
- 과거 성공전략 고수 (근면, 성실, 저가 인건비)
- 낮은 생산성으로 해외 경쟁력 부재
- 해외사업 손실 증대 / 수주 부재

- 해외비중 확대 必 → 신규 시장 진출 (선진국 & PPP)
 - PPP 사업에 ODA, ECA 활용 → 중진국/개도국, 선진국(?)
- 기존시장 사수 / 집중 관리 (원가관리/수익성 확보)
 - 사업 쏠 단계 RM기능 강화
- 영업력(Sales & Marketing) / 의사결정 민첩성 강화
 - 전략적 제휴 및 M&A
- 생산성 향상 추진
 - 스마트 건설 투자, 조직역량 강화

“경영진 리더십을 통한 통합적 관리 필요”